

#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 인권위에 진정

“CCTV통해 화장실서 용변보는 모습까지 노출”  
인권위, 계호기준 마련 등 “개선 필요” 법무부 권고  
교도소 측 “탈옥 시도·극단선택 시도 따른 조치”



1990년대 '희대의 탈옥수'로 알려진 장기복역수 신창원씨(53)가 폐쇄회로(CC)TV를 통한 과도한 감시가 부당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신씨에 대한 특별계호 여부 재검토와 계호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12일 법무부장관과 해당

교도소장에게 권고했다. 계호는 범죄자를 경계해 지킨다는 법률용어다. 계호 대상자는 법무부 예규 상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지정, 관리된다. 전자영상장비 계호는 녹화되는 CCTV를 이용해 계호 대상자를 지켜보는 계호를 뜻한다. 인권위에 따르면 신씨는 1997년 교도소를 탈옥해 2년여 뒤 검거된 뒤부터 독거방 전자영상장비 계호 아래 생활해왔다. 그는 “CCTV를 통해 화장실에서 용변보는 모습까지 노출되고 있다”며 “20년이 넘도록 독거수용

과 전자영상장비계호가 지속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신씨가 2011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소동을 벌인 바 있으나 아버지 사망소식 때문이며, 그 이후로 사고 없이 수용생활을 하고 있다”며 “(CCTV 계호는)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인데 교도소가 신씨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 유사사건에서도 인성검사 특이자로 지정됐다는 이유만으로 전자영상장비계호를 지속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해당 조치를 다시 심사할 것을 권고한 바 있지만 계속해서 유사 진정이 제기돼 교도소 재량적 범위를 넘어 법무부 차원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교도소 측은 “진정인이 다른 사

람과 융화하지 못하고, 공동생활에 적합하지 않은 성격으로 극단적 선택 전역 탓에 교정사고 사전 예방 차원에서 전자영상장비를 이용해 계호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이번 진정으로 광주지방 교정청 산하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 관계자는 “진정은 통상 관할구역에서 제기할 수 있는데, 신씨에 대한 진정은 전남·북과 광주 등 호남지역을 관할하는 광주인권사무소에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1989년 강도살인치사죄로 무기형을 선고받고 수형생활을 하다가 1997년 부산교도소에서 탈옥했고, 도피생활 끝에 1999년 다시 검거됐다. 재검거 이후 22년 6개월 형을 추가로 선고받은 그는 2011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중태에 빠지기도 했다.

뉴스1

## 신종 코로나 감염 50대가 가장 '취약'...어린이는 '극강'

확진자 평균연령 55세  
전 세계에서 4만5000명이 넘는 환자를 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는 40대 이상인 사람들이 더 감염되기 쉬운 것으로 보인다. CNBC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감염자 평균 연령은 약 55세로 집계됐다.

또 취약 연령층은 50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환자 분포를 연령별로 나눠보면 21~39세 10%, 40대 22%, 50대 30%, 60대 22%, 70대 이상 15%다. 보도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는 작년 12월31일 이후 코로나19 확진 환자 대다수는 40세 이상이며,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노와 같은 기저질환이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발표된 한 논문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자들의 평균 연령은 55세로 계산됐다. 해당 연구는 1월 1~20일 사이 중국 우한시 한 진단병원에 입원한 환자 99명을 대상으로 했다. 환자 분포를 연령별로 나눠보면 21~39세 10%, 40대 22%, 50대 30%, 60대 22%, 70대 이상 15%다. CNBC는 또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19는 어린이 감염 사례가 드물고 감염되더라도 증상이 가벼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1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예방 행동수칙**

- 1.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 - 외출,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착용
- 2.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 3. 해외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기! - 발열, 기침 등 호흡기증상 발생 14일 이내 중국 우한시 방문력이 있는 국민

· 상담 및 신고  
관할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  
(☎ 1339)



대학가 신종코로나비상 12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관련 한국어, 중국어, 영어 안내 현수막이 걸려있다. 연세대는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2020년 2월중 개최 예정이었던 학위 수여식을 취소하고 개강일을 3월 16일로 2주 연기했다.

**정화조 청소**  
깨끗한 물, 자연과 함께 하는 기업

노령미화사 061)393-3200  
금성미화사 061)394-3200

정화조는 1년에 1회 이상 환경법에 의해 청소해야 되며, 미 청소시엔 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 단신 ●

#### 여수 해상서 1683톤급 유조선 화재

12일 오전 10시6분쯤 전남 여주시 남면 연도(소리도) 남쪽 6.5마일 해상을 항해하던 1683톤급 유조선 A호(승선원 11명, 바이오오일 3000톤 적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은 여수해경은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을 위해 해경교육원, 통영 해경, 해군, 소방의 지원을 받아 합정 16척과 구조대를 급파했다. 이날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돼 3m 높이의 너울성 파도와 함께 구름이 많은 기상 악화로 인해 해경 헬기는 출동하지 못했다. 오전 11시20분쯤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화재 현장의 연기 배출 작업과 함께 부분별 진화작업을 펼쳐 이날 낮 12시30분쯤 불을 껐다. 불은 선원 침실 부근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화재진압 중 유류유출 등 2차사고에 대비하고 있으며 화재 선박의 열기가 빠지는 대로 자세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 전단지 뿌린다고 오해 골프채 휘두른 50대 입건

광주 동부경찰서는 전단지를 뿌린다고 오해해 길을 지나던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골프채를 휘두른 혐의(특수폭행)로 A씨(52)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1일 오후 4시쯤 광주 동구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 B씨(27)에게 골프채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의 가게 앞에 전단지가 쌓이는 것을 보고 불만을 가지던 중 B씨가 전단지를 뿌린다고 착각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 거문도서 외국인 근로자 지게차 깔려 다리 골절

11일 오후 3시쯤 전남 여주시 삼산면 거문도의 한 초등학교 신축공사 현장에서 몽골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A씨(37)가 지게차에 밀려 넘어지며 왼쪽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다. A씨는 작업 중 언덕길에서 밀리는 지게차를 피하지 못해 넘어지는 과정에서 골절상을 입었고 심한 허리통증도 호소했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여수항공대 헬기를 현장에 보내 환자와 보호자를 가까운 여수전남병원으로 긴급이송했다. 해경은 외국인 환자의 이송이란 점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현장 대응 경찰관 모두에게 방역복 및 마스크를 착용하게 했으며, 환자의 국내 입국일을 확인하는 등 방역 조치를 취했다.

#### “조직 떠나겠다고?”...야산 끌고가 폭행한 조폭

탈퇴 의사를 밝힌 조직원을 야산으로 끌고 가 집단 폭행한 조직폭력배들이 경찰에 무더기 검거됐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군산의 모 폭력조직원 A씨(24) 등 10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0일 오후 11시께 군산시 한 야산에서 B씨 등 2명을 끌고 가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앞서 같은 날 군산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서도 B씨 등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B씨 등이 조직생활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모두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 등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조폭 관련 범죄는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뉴스1